

# 익산서동축제 대단원의 막 내려

### 곳은 날씨 속 안전하게 치러... 개막일 제외 6만6000여 명 방문 무왕행차 행렬로 선보인 백제 부흥의 꿈... 시민 1000여 명 참여

익산시 가장 화려하게 꽃 피었던 백제문화를 재현한 '2024 익산서동축제'가 성황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행된 축제는 우천으로 곳곳에 물웅덩이, 사고 없이 안전한 행사가 이어졌으며, 개막일을 제외한 3일간 6만 6천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 축제를 즐겼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4 익산서동축제'는 '무왕의 백제부흥운동'이라는 주제로, 지난 3일 중앙체육공원에서 시민의 안녕과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기원하는 무왕제례로 막을 올렸다.

이어 5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열린 서동산발대회에서 새롭게 탄생한 2024년 서동왕자(김부영 군)의 즉위식과 함께 개막행사가 시작됐다. 경주와 일본에서 온 사절단을 비롯해 퍼레이드에 참여한 1,000여 명의 행렬과 많은 시민이 함께하며 화려한 백제의 부흥을 알렸다.

이후 4일부터 6일까지 금마서동공원 일원에서 진행된 축제장에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실재 없이 이어졌다.

마를 깨던 이어졌던 서동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오감민족 댄스방 사동을 이겨라, 금을 찾아 서동실화의 주인공이 되어 모험을 떠나는 금빛서



동 백제 무왕이 되어라 등 축제의 주제를 강화한 프로그램은 가족들에게 있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했다.

6일 서동축제장에서 열린 청소년 댄스대회에는 전국에서 14팀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끼와 재능을 펼치며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함께 방문한 친구, 가족들과 서동축제를 즐겼다.

색색의 풍선과 달콤한 솜사탕, 축제장의 밤을 아름답게 밝혀주는 하트봉선물들은 어린이날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웃음과 달콤한 추억을 선물했다.

어둠이 내린 축제장은 서동실화의 사랑과 백제 30대 무왕이 꽃피운 찬란한 백제문화를 빛의 향연으로 피워냈다.

서동과 선화를 이어준 사랑노래가 금마서수지 수상공연장에서 울려 퍼

졌고 청룡의 해를 맞이해 희망을 전하는 청룡 터널과 축제장 곳곳에 설치된 대형 백제 유등들이 화려한 빛으로 관람객을 맞이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와 환경을 생각하는 세심한 먹거리 부스 운영도 돋보였다.

시내권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보석박물관과 연계한 셔틀버스를 통해 관람객 접근성을 개선했으며, 다회용 친환경 용기를 먹거리 부스에서 사용해 친환경적인 축제가 되도록 힘썼다.

축제장을 찾은 한 시민은 "지난해에 이어 가족과 다시 축제장을 방문했는데, 불편하게 생각했던 셔틀버스가 오히려 주차장을 찾아 해매는 것보다 훨씬 편했다"며 "무왕의 어린시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있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동축제를 통해 무왕의 도시 백제왕도 익산을 널리 알리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시민들에게 선물하는 기회가 됐다"며 "익산을 대표하는 서동축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성장하도록 행사 이후에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어르신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 익산시, 어버이날 기념행사 성료... 16일 효(孝) 콘서트 진행

어버이날을 맞아 익산 곳곳에서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한 문화행사가 진행됐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들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효(孝)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먼저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병기이 KCN금강방송과 함께 '제52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 및 제3회 청춘 효(孝) 콘서트'를 7일 이리신광교회 그레이스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2,0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비롯해 정현을 익산시장과 최홍우 익산시의회 의장, 한병도 국회의원, 이준석 국회의원 당선인 시의원, 권오국 신광복지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효행 풍토 조성에 공헌한 유공자 9명에게 도지사 및 익산시장 표창장 수여로 시작했다.

이어진 2부 공연에는 장구의 신 가수 박상철과 무조건으로 유명한 가수 박상철이 무대를 선보였으며, 골프를 테마로 하는 트로트 걸그룹 레이다와 국악가요팀 등이 출연해 어르신들의 흥을 돋웠다.

8일에는 남부권·황동·북부권 노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복지관 어르신 780여 명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간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익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무대 행복플러스' 공연단을 초청해 무용·풍물 공연을 진행하고, 노인복지관의 장구 및 우물탈레 팀이 실력을 뽐내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는 16일 일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관장 신이원)은 룩스팸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효(孝)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1000여 명을 초청해 진행할 예정이다. 가수 박상철 전미경, 박재란 김지현 등 무대와 최진호, 하은 등이 팝페라 공연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문화생활 장려를 위해 각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야외활동, 공연관람, 각종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가발전의 이끈 부모님들의 헌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경로효친 사상이 많이 퇴색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어르신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익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 통

###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 본격 추진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군산시 속인 사업인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군산 사정동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심뇌혈관센터, 건강증진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공사 참여 의사를 밝힌 시공업체 중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전북대병원과 계약 등을 마무리 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40개월 정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7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등 의료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운영,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현대중공업 예술관 문화예술교류 협약 체결

군산시가 7일 HD현대중공업 현대예술관과 문화예술교류를 체결했다. 이는 문화예술교류를 통해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도모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HD현대예술관은 HD현대중공업이 운영하는 울산의 대표적 복합문화센터로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매년 새롭게 개설해 문화와 예술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다양한 메세나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군산시 신원식 부시장과 HD현대중공업 현 전무(상생·문화 부문장) 등 관계자가 참여, 본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적극 협력 및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군산시는 HD현대가주 초대직접관을 7월부터 24일까지 군산시청 2층 시민갤러리에서 전시중이며 회화·서각·사진작품 등 총 16점이 선보여 관람객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결혼하기 좋은 도시 조성 총력

### 2025년까지 1만여 가구 주택 공급을 비롯 출산·양육 지원 추진

익산시가 결혼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가족친화 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주거 환경 조성 및 출산·양육 등 신혼부부를 위한 선별보편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신혼부부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의 대출잔액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원 대출 상품에 대한 이자 3%를 추가로 지원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2025년까지 1만여 세대의 신규아파트를 공급하고 이와 함께 5개 권역별 민간특례 근린공원을 조성한다.

올해는 수도산공원의 복합문화센터와 수영장, 마동공원의 커뮤니티센터,

모인공원의 숲속도서관이 준공될 예정으로 여가생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준비했다.

예비·신혼부부는 총 28종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임신 시전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을 지원하며, 임신부에게는 '익산형 임신부 280 건강관리비'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를 위해서는 △난임 진단검사비 최대 30만 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최대 200만 원 △난임부부 시술 최대 27회 △한방 난임부부 지원 최대 2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 가정에는 △첫만남이용권 300만 원 △육아용품 구입비 10만 원 △

다둥이 사랑 지원금 360만 원을 비롯해 출산장려금으로 최대 100만 원부터 다섯째 이상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녀 양육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 90% 지원 △청소녀 산모·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등을 지원한다.

자녀 양육 시 필요한 △가자귀·조제분유 △아동수당 △보육료 △콜택시 지원 등을 비롯해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첫째는 70%, 둘째 이상은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 100원 버스 운영은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재경군산시민회, 고향 군산 방문

재경군산시민회(회장 빈원영)가 지난 4일 고향 방문 행사 일정으로 군산을 방문했다. 그간 재경군산시민회는 매년 고향 방문 행사를 추진해 고향 사랑 실천을 지속해왔다.

군산시를 방문한 재경군산시민회 회원 80여 명은 미성동 군산 공공보육시설과 월명공원 일원 등 지역 명소를 방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빈원영 재경군산시민회장은 "발전한 군산의 모습을 보며 자긍심과 애郷심을 느낀다"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고향을 잊지 않고 군산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임준 군산시장 역시 "바쁘신 와중에 고향을 찾아주시고 늘 군산 발전을 응원해 주시는 재경군산시민회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군산과 재경군산시민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재경군산시민회'는 1998년 12월 22일 창립, 군산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고향 발전을 지원·응원해왔으며 올해, 1월 재경군산시민회 신년인사회가 열렸을 때는 빈원영 회장이인 행사장기부제의 활성화 기원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5백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